

보호자 여러분께

지진·해일에 대비한 대책 및 대규모 지진 시의 대응에 대하여

보호자 여러분, 평소 본교의 교육활동에 이해와 협력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높은 확률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바시에도 피해가 예상 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비상시에 대비한 대응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1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지진·해일 대책

- (1) 학교 시설의 안전 점검
정기적인 학교 건물의 안전 점검 실시, 넘어지기 쉬운 물건·무거운 물건 등의 쓰러짐 방지 대책 등
- (2) 학교 시설 설비의 현황 확인
- (3) 생활용수, 방화용수의 확보
- (4) 방재지도 (해저드맵) 등에 의한 지역의 실태 파악
통학로와 지역의 위험 장소 파악, 통학 구역의 재해 리스크 파악, 광역 대피 장소까지의 경로 확인 등

2 대피 훈련·재해 방지 교육의 강화

- (1) 대피 훈련
 - ① 연중 교육 과정 속에 배치 시켜서 학생들이 목적을 이해하면서 실시하도록 함
 - ② 통상적인 대피 훈련과 더불어, 인도 훈련이나 대피 장소를 고려한 훈련 등 보다 실천적인 훈련 실시
- (2) 재해 방지 교육
 - ① 각 교과, 도덕, 특별 활동, 종합적인 학습시간 등 학교 교육 활동 전체를 통해서 재해 방지 교육을 실시
 - ② 대피 훈련을 통해서 적절한 상황판단력과 침착한 행동력의 정착

3 대규모 지진 시의 초기 대응

- (1)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지진이 발생한 경우
 - ① 안전 확보 행동 (활동 장소에서 몸을 지키는 행동)
 - ② 대피 장소로의 이동 (「밀지 않기」「뛰지 않기」「말하지 않기」「돌아가지 않기」)
 - ③ 판단 :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하교」, 「집단 하교」, 「보호·인도」 등으로 판단한다.

【「보호·인도」에 대해서】

지바시 구역에서 진도 5약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한다.
학교 시설의 피해 상황, 전기·수도·가스 등의 상황, 대형 쓰나미 경보·해일 경보의 발표 상황 등을 파악해서 '학교 내에서 보호' 할지, '다른 장소(광역 대피 장소 등)에서 보호' 할지를 판단한다.
통학 구역 이나 통학로의 상황, 보호자의 귀가 정보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인도한다.
· 「인도 카드」를 활용해서 확실하게 보호자 등에게 인도한다.
· 보호자가 귀가 곤란 등으로 인도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충분히 배려한다.

- (2) 학생 등·하교 중 지진이 발생한 경우
 - ① 간판, 주택 외벽, 높은 빌딩의 유리창 등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안전 확보 행동)
 - ② 등·하교 중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학교로 향한(돌아간다).
 - ③ 등·하교 중이라도 학교보다 확실히 자택이 가까운 경우, 도중에 다른 학교·공민관 등의 대피장소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학교가 아닌 자택이나 대피장소로 대피한다.
 - ④ 지진 발생시나 직후에는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지 말 것.
(여진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행동)

- (3) 학생이 자택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 하교 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시내에서 진도 5약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택 대기를 한다. 교내 및 통학 구역의 안전을 확인한 후, 학교별로 학부모에게 해제 연락을 한다.